

2011년 제 1회 FIF 무선 WG 월례회의

일시: 2011년 7월 29일(금) 17시 - 18시

장소: 삼성동 OSIA 사무국 회의실

참석자: 김영용(연세대학교), 김재현(아주대학교), 박경준(DGIST), 박형곤(이화여자대학교), 이성원(경희대학교), 임혁(GIST), 정방철(경상대학교), 정송(KAIST), 최영준(아주대학교), 김미영(FIF, 배석)

안건:

1. WG 멤버 소개 및 간사 선정

참석자들 간 소개

박경준 교수를 간사로 선정

- 간사는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

2. 2011년 WG 활동 계획

WG의 기본적인 활동 내역 기록 필요함

- 회의록 작성(간사), 발표자료 취합, 위키 및 뉴스레터 작성(정송)

향후 참석희망자 다수 존재. 많은 참석이 예상됨

- 정송교수님께서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에게 참석 독려함

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방배역 정보과학회 건물 회의실에서 정례회의 개최 결정

- 일정상 8월의 경우 셋째주 금요일(8월 19일) 회의 개최

다음번 회의일시: 2011년 8월 19일 금요일 16:00 - 18:00 방배동 정보과학회 회의실

3. 향후 WG 활동 방향 토의

첫 월례회의로서 향후 모임의 방향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진행

- 본 모임이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발전적인 형태가 될 것인가?

결과정리: 주제를 한정하기 보다는 자유롭게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도록 한다. 한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 넓은 논의 중 어느 쪽을 회의의 기본방향으로 할지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 논의 필요.

다음 회의는 다음 두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한다.

- 1) 주과수 분배와 같은 첨예한 현안에 관한 난상토론
- 2) 참석자가 새로운 주제를 몇 개 준비하여 발표

참석자 발언 내용 정리

정송교수님: 본WG이 새로 만들어질 네트워크이론연구회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

정송교수님: 기업에서도 관심이 많음

김재현교수님: 어떻게 재미있게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?

박형곤교수님: 이용, 모정훈 교수님과 진행하는 NetEcon Workshop 예를 설명

정송교수님: Big theme을 몇 개 정하자. 각 참석자가 돌아가면서 발표 혹은 기업관계자들을 초빙하면 좋겠다.

김재현교수님: 위의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어우러지면 좋겠다.

임혁교수님: 친목도모를 기본으로 참석. 뉴스레터에 각 연구자별로 본인의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. 깊이 있는 논의는 따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편이 좋으리라 생각한다.

김영용교수님: 경제학과나 사회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면 좋겠다.

정방철교수님: WG내에 소모임을 만들면 좋겠다.

정송교수님: 주제중심으로 움직이면 좋겠다. 범주를 확장하여 외연확장을 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면 어떨까?

이성원교수님: 길게 보지 말고 다음 회의부터 정하고 진행을 살펴보자.

박형곤교수님: OSI 7계층 필요한가? (테크니컬한 질문)

이성원교수님: 다음번에 답안을 준비해보겠다.

정송교수님: 앞으로 진짜 무엇을 해야 되나?

이성원교수님: 주파수 분배 문제, 망중립성 등의 주제는 어떻겠는가?

정송교수님: 네트워크는 사회인프라로 봐야 한다.

이성원교수님: 구글을 살펴보면 어떨까? 신기한 통신기술들을 만들고 있다. 하수시스템을 이용해서 브로드밴드 시스템을 만들었다. 표준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.

정송교수님: DTN, M2M 정도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주제들이다.

임혁교수님: 무선네트워크를 학생들에게 잘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면 어떨까?

정송교수님: 통신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연구주제가 남았다고 한다.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다음번 미팅은 다음 두 가지중 하나

1) 참여한 현안(주파수 이슈?) 난상토론

2) 참석자가 새로운 주제를 몇 개 준비

임혁교수님: 기본적으로 모임의 이름이 있으니, 미래인터넷에서의 무선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항상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.

정방철교수님: 다른 사람들이 그린 미래로드맵도 살펴보면 좋겠다.

김재현교수님: 교수의 특성을 반영해서 좀 더 자유롭게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.